'佛心 부산' 연등 물결로 부처님오신날 찬탄

4월 29일~5월 7일 부산연등축제 개최

연등회 · 연등문화제로 다채 구성
장대해진 연등행렬로 기대감 고조
5월 3일 KBS 특별공원도 마련
가수 홍진영 · 인순이 등 출연진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부산시민공원에서 4월 29일 부산연등회를 개최하고, 5월 7일까지 부산연등문화제를 진행한다. 사진은 2016년도 부산연등회 모습.

부처님 오신 날을 빛으로 물들이는 '2017년 부산연등축제'가 부산시민공원에서 새롭게 열린다. 부산시민공원의 넓은 부지를 이용해 봉축연합대법회, 점등식, 어울림 한마당을 동시에 진행, 집중도를 높이고 부산 대표 번화가인 서면 거리를 연등행렬 거리로 새롭게 지정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위원장 경선)는 봉축을 맞아 부산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 축제를 기획했다. 3월 22일 부산 황련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불심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불교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문화축제가 될 것"이라며 "연등축제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연등행렬 연희단의 화려함을 높이고 아울러 불자와 시민들을 위해 부처님 오신 날 KBS 특별공연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부처님 오신 날 KBS 특별공연은 5월 3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이며 가수 신유, 김도향, 홍진영, 인순이, 조항조 등 화려한 출연진이 무대를 장식한다. 정산 스님은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되는 특별공연은 불자 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 축제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등축제는 크게 4월 29일에 열릴 '부산연등회'와 4월 29일~5월 7일 '부산연등문화제'로 진행된다.

부산연등회는 국립국악원 맞은편에 위치한 부산시민공원 내 아트센터 건립 부지에서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한다. 국가발전 및 화합을 발원하는 영산재와 육법공양으로 문을 열어 종립학교 금정중학생들이 참여하는 느티떡 나눔 및 호기놀이를 설행(設行)해 과거 부처님 오신 날의 전통문화를 보여 준다. 이어 내빈들의 관불의식 후 봉축연합대법회에서는 2만 여 불자들이 오체투지로 부처님의 나투심을 찬탄한다. 16만평의 부산시민공원을 화려하게 장식할 180여개의 장엄등을 밝히는 점등식과 제등연등행렬, 회향 한마당으로 마무리 된다.

이번 제등행렬 진행 거리는 약 3.5km로 시민공원남문에서 출발해 삼전교차로, 서면 로터리, 온종합병원, 진양교차로, 부산진중학교를 돌아 다시 남문으로 돌아온다.

부산연등문화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청사초롱, 소원지, 등꼬리표 붙이기 등 다양한 체험마당 부스를 운영한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3월 31일까지 문화제 체험 부스에 참가할 사찰 및 신행 단체를 모집 중"이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부산 광복로 연등문화제는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인다. 광복로연등문화제는 4월 22일 오후 7시 광복로 입구 안전지대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7일까지 광복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점등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임원 스님들과 중구내 사찰 주지 스님 및 김은숙 구청장 및 내빈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부산시민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연등축제이다. 넓고 확 트인 공간의 장점을 살리고 연희단 퍼레이드와 어울림한마당 특별공연을 동시에 열어 누구나 참여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베지나랑, '행복한 공양주' 양성 프로젝트 돌입

공양주 대상 소양 교육 …4월 2일부터 개강



나랑아카데미가 4월 2일 채식전문식당 베지나랑서 '전문 공양주 양성 프로젝트' 첫 수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나랑아카데미 소장 수인 스님(사진 오른쪽서 두 번째)과 베지나랑 직원 일동.

음식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할 '공양주 양성 프로젝트'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행복한 공양주'로 불리며 각 사찰에서 수행음식 전문가로 활동하고 수행자의 지계를 수호할 공양간 호법신장을 담당한다.

(사)행복한마을 산하 채식문화연구소 나랑아카데미(소장 수인)는 4월 2일 오전 10시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베지나랑(채식전문식당)에서 '전문 공양주 양성 프로젝트' 첫 수업을 시작한다. 6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열리는 공양주 프로젝트는 각 사찰에서 공양 소임을 직접 담당하는 공양주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수행자를 음식을 통해 돕도록 지도하고 한국 불교 사찰 내 공양주의 위상을 다시 고찰해 보는 프로젝트로 총 16명의 수강생을 받고 있다. 수업료는 한 달에 15만원이다. 수업료는 대부분 재료비와 사찰 대중공양으로 회향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를 통해 참가자들은 채식 전문 요리법을 전수 받을 뿐 아니라 불교의식에 필요한 소양 교육으로 불교대학 기본교육, 100일 기도 참여, 사찰예법, 제사법 등을 배운다. 또 마지막 실전 수업으로는 베지나랑에서 주최하는 대중공양에 참여하고 사찰 공양간에서 실습하며 전문성을 익힌다. 수업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베지나랑 채식 음식 레시피를 수료 후에도 인터넷 공유 자료를 통해 제공받고 베지나랑에서 직접 공수하는 채식 요리 재료를 제공 받는다.

아울러 베지나랑은 공양주를 위한 협회(이름 미정)를 창립해 사찰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을 이수한 공양주들이 사찰에서 제공하는 복리 후생을 제공받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인 스님(베지나랑 대표이사)은 "현재 한국 불교에서 공양주는 하나의 직장처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찾는 곳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선 참된 공양주의 역할과 의미를 찾기 힘들다"며 "공양주는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수행의 기쁨을 동시에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불살생의 계를 지키고 오신채를 먹지 않는 사찰 공양간으로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도와야한다"고 중요성을 역설했다.

수인 스님은 2004년 충청도 부여 보리사에서 석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청도 운문사 강원에서 수학했으며 당시 공양간 별좌 소임을 담당하며 사찰 음식을 익혔다. 현재 거창과 부산에서 채식 음식 전문점인 베지나랑을 열고 채식공양 대중화에 앞장서며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070)4177-5555

하성미 기자

삼광사, '국민화합 발원' 일주문 상량



부산 삼광사가 일주문 상량식을 봉행하며 국민화합을 기원했다

삼광사(주지 세운)는 3월 18일 일주문 불사 현장 앞에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기원하는 일주문 상량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애국불교를 기치로 기도하고 정진하는 천태종 삼광사는 이번 상량식을 단순히 일주문 불사를 위한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해 기도 정진하며 국민 화합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애국 · 생활 · 대중불교를 실천해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일주문을 상량하며 원력을 세우고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주문은 다포식 공포의 맞배지붕으로 건립되며 건축면적 949㎡ 높이 9.57m이다. 다가오는 4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청량사, '향기로운문화 동행' 발대식



부산 기장 청량사(주지 보혜)는 3월 18일 (사)향기로운문화 동행을 공식 발대하고, 차와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문화 방편으로 포교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사진〉

보혜 스님은 "법인 설립은 오래전부터 문화 포교를 위해 세운 원력이었다"며 "지역 특색을 담는 아름다운 정신문화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향기로운 문화동행은 다가오는 4월 9일 오후 2시 청량사에서 창립을 축하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혜 스님은 기장 차문화대학 2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하성미 기자

대명지사 개원 18주년 기념 법회



해인사 부산 포교당 대명지사(주지 대휴)는 3월 21일 개원 1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명지사는 부산 북구청에 연탄기금 1,000만원, 백양고등학교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명지금강문수회가 2010년 7월 '500원만 저축하면 세상이 따뜻해져요' 라는 슬로건으로 자비의 연탄은행 통장을 개설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다.

주지 대휴 스님은 "창건 당시 주축이었던 명지장학회와 명지금강문수회 회원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사찰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창건 당시의 위상을 되찾아 불자들에게 불법을 널리 펼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천주암, 관음종 제2교육 도량으로 만들 것"

천주암 신임 주지 도선 스님



대한불교관음종 경주 천주암(주지 도선)은 주지 취임식 및 생전예수재를 3월 19일 봉행했다.〈사진〉

주지 도선 스님은 "70여년이 넘은 법화도량 천주암서 앞으로 교육 불사에 역량을 쏟겠다"면서 내년부터 관음종 기초교육을 위한 전법도량 건립불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수산자비선원 야천당 수산(법상)스님과 함께하는

제5회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 및 제14회 경로위안큰잔치



초청스님
• 태종사 도성 큰스님(전 대흥사, 해인사 주지스님 역임)
• 석가사 조실 가산큰스님(국가 재야 원로회 상임위원, 대각교단총재)
• 서래암 월인 종정스님(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이사장)외 100여분의 큰스님 동참

초청가수
• 김상희(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외), 현당(정 하나 준것이 외)
• 법만스님(불교정중종 총무원장 법만사 주지, 불자가수)
• 한보민(빈손외 메들리), 신유성(내사랑 천사 외), 김인수 외 경기민요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20	20'	• 식전행사 – 창원시노인지회 노인대학 학장 조희자-부채춤 김인수 외 경기민요	사회자
13:20~13:50 (석가대장로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80권 사경 원만회향 고불대전)	30'	• 고불문 : 석운암대화상 (석가산대장로 문도회회장) • 축발의식 • 석가산대장로 소개 : 이종문 법사 • 법문 : 석가산대장로	이종문 법사
13:50~14:35 (제5회 불교인 단합대회)	45'	• 개 회 • 국민의례 • 내빈소개(야천당 수산(법상)스님 • 대회사(야천당 수산(법상)스님 • 격려사(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 • 법 어(도성스님) • 법 문(가산스님) • 축 사(월인스님)	사회자
14:35~ (제14회 경로 위안큰잔치)		• 특별초대가수 – 김상희, 현당 • 불자가수 초청무대 – 법만스님 • 축하무대 – 한보민, 신유성 • 초청공연 – 모듬북 난타 – 「천둥소리」	

석가산대장로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80권 사경 원만회향 고불대전

의 식 순 서

1 고불문 : 석운암대화상 (석가산대장로 문도회회장)
2 축발의식
3 석가산대장로 소개 : 이종문 법사
4 법문 : 석가산대장로

제5회 불교인을 위한 단합대회


대 회 사 야천당수산(법상)스님


격 려 사 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 홍창오


법 어 도성큰스님


법 문 가산큰스님


축 사 월인큰스님

제14회 경로위안큰잔치


특별초대가수 김상희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특별초대가수 현당 (정하나 준것이 외)


불자가수 법만스님


한보민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창원시지부 가수)


신유성 (내사랑 천사 외)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1시 ~ 오후 4시
장 소 | KBS창원홀
후 원 | 대한노인회 창원지회
협 찬 | 야천당 수산(법상)스님이 직접 운영하는
• 자비요양병원 문의:055)288-6300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치료전문)
• 명곡한의원 / 자비마을(요양시설)
문 의 | 055) 277-7626


특별공연 : 모듬북난타 – 「천둥소리」

후원계좌 :
농 협 351-0613-3149-83 예금주 : 사)수산자비선원
경남은행 581-22-0325609 예금주 : 수산자비선원 정봉수